



하느님 나라의 초대장은 겸손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상석(上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율법 학자나 바리사이들에게 대해 말씀하시죠.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이나 잘 먹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랑 담소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높은 자리,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생각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 따끔한 충고를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려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윗자리를 좋아하는 율법 학자나 바리사이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謙遜)이라 함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하며 입을 다물거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 참다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사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한없는 자기 낮춤과 영원한 임금(王)이신 하느님 안에 종속된 유한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인식하는 것이 참다운 겸손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느님 앞에 선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겸손이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이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아예 높은 자리는 넘보지도 말고 가장 아랫자리를 찾아 편안하게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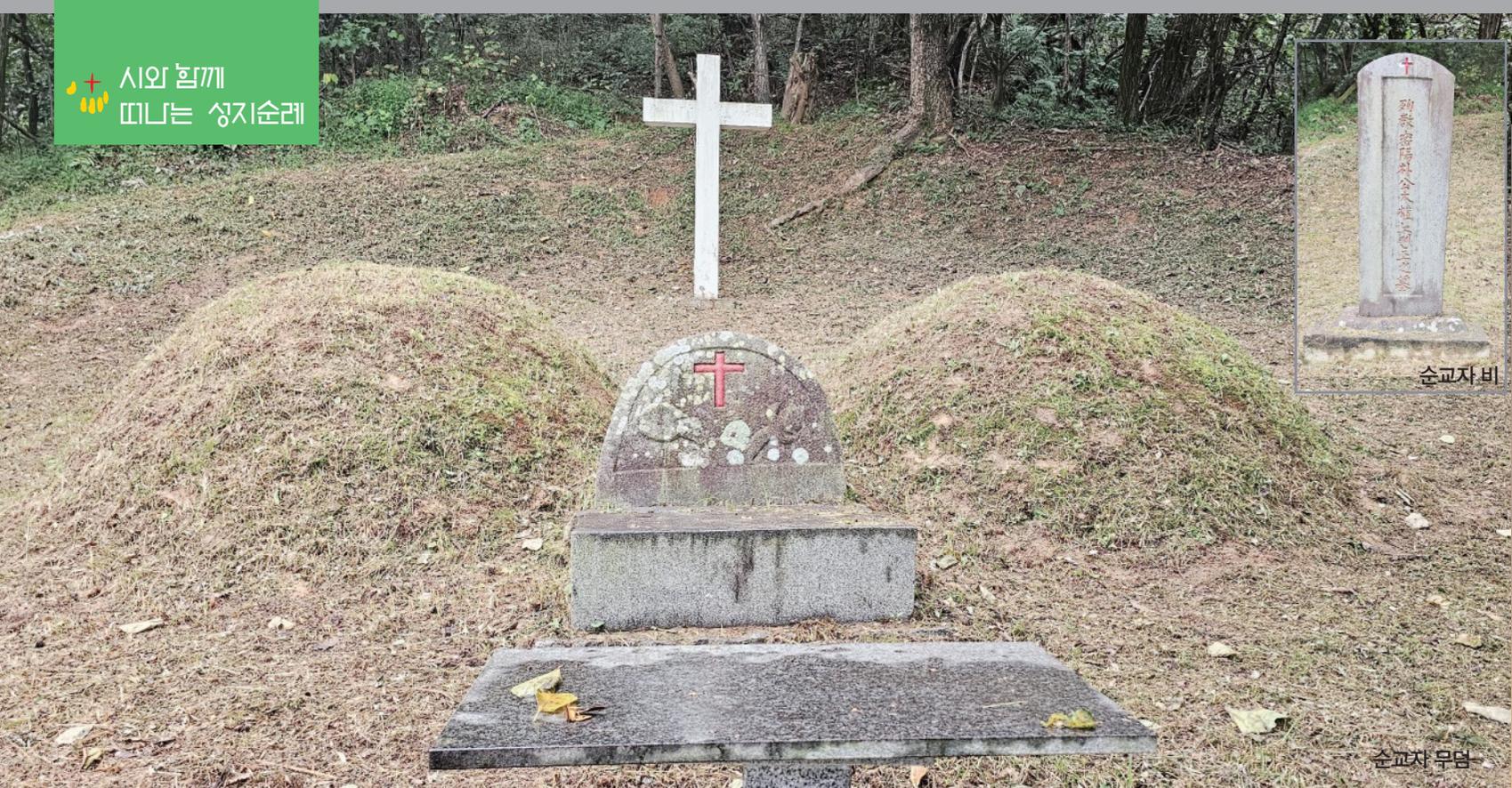
특히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며 누구나 한 번은 맞게 되는 죽음을 묵상해 보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 날입니다. 특히 라틴어 속담에 “오늘은 나, 내일은 너”(Hodie mihi, Cras tibi)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잊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당신의 나라에 초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초대장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박재우 베드로 푸리에 신부 | 봉곡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 | |
|---------|-----------------------------|
| 제 1 독 서 | 말라 1,14ㄴ-2,2ㄴ.8-10 |
| 화 답 송 |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
| 제 2 독 서 | 1테살 2,7ㄴ-9.13 |
| 복 음 | 마태 23,1-12 |



순교자비

순교자 무덤

십자가의 신비

민창홍 요한 시인(시, 글, 사진)

같은 길 두 번이나 묵주기도 바쳐도
이슬비가 내리고 숲은 저물어 막막한
남해고속도로 옛 진영 터널 앞

하늘 향한 십자가 찾아
풀숲 헤집고 오르는 길
산 아래 차량의 불빛 이따금 반짝대고

무진년 강요된 배교 뿌리치며
어둠 속 고문에 문드러진 몸
주님 향한 길이, 이 길이였을까

숲 헤집고 거미줄 걷어내는 들녘 저편
공장의 불빛 하나둘 켜져서
길 아닌 길 외롭다

돌아서 흐르는 땀방울 사이로
유성처럼 스치는 빛 속
흰색과 녹색의 선명함

당신의 신비가 만드는 십자가
따뜻하게 너른 들 안아주는 언덕
박 빅토리노 순교자 묘

어둠을 이겨낸 믿음에 묵상하고
어둠을 이겨낸 신비에 기도드리니
고속도로 빛이 달리고 있다



박대식朴大植 빅토리노는 1812년 경상남도 김해 예동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들 삼 형제를 두었다. 언제부터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입교한 이후 부친 박만혁과 형제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1868년 7월 7일 무진박해 때 대구에서 내려온 포졸과 김해 포졸들에게 체포되었고 대구 감사는 박대식과 그의 동료들이 결코 배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형을 선고하여 1868년 10월 12일 대구 관덕정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가족들이 포졸들에게 돈을 주고 순교자의 시신을 모셔왔으나 집안 외인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동(현 경남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책골) '유씨' 문중 산에 평장으로 매장된 후 90여 년이 지난 1956년 봄에 후손들이 무덤의 봉분을 크게 하고 순교자 부인의 묘도 이장해 완전한 묘역으로 가꾸었고 1966년 4월 15일 당시 진영본당 주임이었던 유창호 신부의 주선으로 순교자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다. 마산교구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박대식 빅토리노는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다.

신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변종원 요셉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 번쯤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은총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53항) 다시 말해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며,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서 먼저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요한 3,27 참조).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에 응답하며 그 은총에 합당하게 성심성의껏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시작된 복된 신앙생활이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인간적 나약함과 현실적 어려움,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들로 인해 신앙에 대한 불신이나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 불신과 의문으로 약해지고 흔들려진 믿음은 마침내 온전한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항구함이 요구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2항 참조).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루카 22,32), 끝까지 신앙을 지켜 구원에 이르도록 당부하셨습니다(마태 10,22 참조).

그렇다면 은총으로 시작된 복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항구이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와 성사에 올바른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697, 1134).

주위의 많은 분들이 '기도'의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힘들지만, 하고자 한다면, 잘할 수 있다'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1테살 5,17참조)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성사'에 소홀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오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할 이루기 위해 우리가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만나는 은총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331 참조). 만약 우리가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또 하느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 살기를 원한다면, 하느님 자신이요, 하느님의 아들을 맞아들일 준비에 지금보다는 더욱 정성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성사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가 봉헌하는 때 미사에 성실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사,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성경'을 자주 읽고,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되새기고, 삶을 위한 지침으로 삼으며,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신앙으로 격려하고, 언제라도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창세 22,1)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귀찮거나 짐스러운 것,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생활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기쁨과 슬픔, 고난과 위로, 현세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으로 뒤덮인 십자가가 영원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명에는 편하고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마태 11,30 참조).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삶을 기쁘고 보람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사무장 연수



교구 사무처(사무처장: 주용민 리노 신부) 주관의 하반기 사무장 연수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성지순례로 진행되었다. 본당과 성지 58명의 사무장이 참석하여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묘소가 자리한 미리내성지와 인천교구 강화도 지역의 진무영 순교성지(강화성당), 갑곶순교성지, 일만위순교자현양동산을 순례하였다. 그리고 인천교구청 성모순례지에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성지순례를 통해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순교자들의 삶을 마음에 새기며 사무장으로서의 소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무장협의회 총회에서는 활동 보고와 건의사항, 새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그동안 수고한 제21대 회장 한순이 엘리사벳(명서동) 사무장과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된 강진욱 아우구스티노(철암동) 사무장의 인사가 있었다. 제22대 사무장협의회장은 수렴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교구와 긴밀한 협조 아래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였다.

서포선교본당 신앙특강



서포선교본당(주임: 임성진 요한 신부)은 10월 15일 신자들의 영성 강화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별을 따라가리라'는 주제로 신앙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날 특강은 '박우곤 알렉시우스 형제'를 초대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삶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삶 안에 늘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자들은 특강을 통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삶을 묵상하는 소중한 체험을 하였다.

남성동본당 '매괴의 모후 Pr.' 2,000차 기념 주회

남성동본당(주임: 정홍식 마르코 신부) 남성 그리스도의 모친 Cu. 직속 매괴의 모후 Pr.(단장: 정점순 테레사) 단원들은 10월 25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매괴의 모후 Pr.은 1984년 5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8명의 여성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본당 사제를 비롯하여 역대 단장들과 본당 레지오 단원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월남동본당 착한 의견의 어머니 Cu. 새 교구장 선임을 위한 미사 봉헌



월남동본당(주임: 박창균 시메온 신부) 착한 의견의 어머니 Cu.(단장: 이용길 스테파노) 단원들은 10월 21일 교구청 2층 성당에서 새 교구장 선임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미사에 함께한 본당 레지오 단원들과 신자들은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구민들이 새 교구장을 모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요 속에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였다. 박창균 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정성된 기도를 당부하였다.



가음동본당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성당 이전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가음동본당(주임: 이창섭 아우구스티노 신부)과 가음 4구역 재건축조합이 지난 8월 8일 법원의 조정갈음 협의를 통해 원만한 보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보상 내용은 임시성전 이전 비용과 성당 재건축을 위해 76억 8천만 원을 재건축조합 측이 성당에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새롭게 신축되는 가음동성당의 성전 규모는 지하 2층(주차장), 지상 600평 규모의 성당과 부속건물을 설계하고 있으며, 보상금만으로 부족한 자금은 자체 모금과 외부 모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설립된 지 46년을 맞이하는 가음동성당은 창원공단 조성 시 최초로 설립된 창원의 모 본당이며, 이번 성전 건립으로 그 위상을 드높일 아름다운 성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재건축 조합과 10월 29일(주일)에 상생 발전 협약식을 통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로 상호 다짐하였습니다.

가음동본당 공동체는 앞으로 약 2년 동안 임시성전에서 지내고, 2025년 성탄은 새 성전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구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큰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쳐서 미치게 되기를

문옥영 테오도라 시인/ 가톨릭문인회

“달고 맛있는 과일 한 박스 오천 원, 칠천 원” 귀가 솔깃하게 하는 확성기 소리와 함께 트럭이 멈추어 선다. 입안 가득 침이 고인다. 지난주에 시장에서 샀던 한 박스 칠천 원짜리도 맛이 꽤 괜찮았다. 그 사이 값이 더 내린 걸까. 트럭을 기웃거리자 건장한 사내가 냉큼 한 박스를 비닐봉지에 담는다. 만 원을 내밀고 거스름돈을 기다린다. 그는 거스름돈 내줄 생각은 않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다짜고짜 미친년이라고 한다.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욕설이다.

오천 원이 아니라 만 오천 원이라고 한다. 오천 원, 칠천 원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되묻는 내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친년”을 반복한다. 지갑에 돈은 충분히 있지만, 험한 소리까지 들으면서 사고 싶지는 않다. 굴복하지 않으리라 작정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참아낸 끝에 만 원을 돌려받는다. 건장한 사내의 거친 말투는 그 자체로 폭력적이다. 집으로 돌아오며 자꾸 뒤를 돌아본다. 혹시나 따라와 해코지할까 발걸음을 재촉한다.

손님을 불러 모으기 위한 호객행위는 흔한 상술의 하나다. 터무니없이 짠 가격을 제시하거나 거짓 홍보를 해도 예사로이 발걸음을 옮긴다. 우리가 예사로이 여기는 곳곳에 싱싱하게 살아있는 달고 맛있는 유혹. 어딘가 의심스럽지만 솔깃한 꼬임이다. 믿을 수 없지만 밀쳐야 본전이라는 판단을 하기도 한다. 그 대가는 배신감이요 결과는 불신이다. 불신은 폭력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믿음 깊은 사람도 절박한 상황에서, 욕심이 앞서서 순간 판단력은 흐려지고 유혹에 빠진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혼부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장만한 전셋집이 빈 깡통이란다. 은퇴 후 남부럽지 않게 살던 지인은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전 전금궁한다. 환한 대낮에도 호젓한 산책길에 들어서면 두리번거리게 된다.

푸른 하늘 눈부신 햇살 시원한 바람은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 그 뒷모습은 참 쓸쓸하다.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눈빛 참 서글프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한동안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불광불급不狂不及”(정민, 『미쳐야 미친다』)에 꽃혀 그야말로 미친년처럼 살았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하늘을 바라본다. 마지막 남은 광기, 믿음, 소망, 사랑을 탈탈 털어서 하늘나라에 다다르기를 바란다.

그가 사랑이신 하느님을 알고 믿었더라면, 트럭 행상을 하며 떠돌더라도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달고 맛있는 꼬임수를 쓰지는 않았을 테다. 거친 막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지도 않았을 테다. 그가 “과연 의인에게는 결실이 있구나. 과연 세상에는 심판하시는 하느님께서 계시는구나.” 시편 58편 12절의 이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그가 한없이 자비하신 하느님께 미쳐서 하늘나라의 경지에 미치게 되기를…….



기억할 선종 사제
최동오(아타나시오) 신부
2009년 11월 9일

교구/본당

제177차 약혼자주말

일시: 11월 10일(금)~12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3

제32회 반석청소년축제(마산지구)

일시: 11월 12일(주일) 10:00/ 장소: 교구청

예비신학생·여학생 예비성소 모임-반석축제참가

일시: 11월 12일(주일) 10:00

기타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한국 진출 60주년 감사미사

일시: 11월 21일(화) 15:00
장소: 상평동성당
문의: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010·6805·7665

동계피정 안내

장소: 평생교육원 젊음의 집
대상: 교리교사, 자모회, 복사단,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문의: 055·255·8295, 010·7661·3832
▶피정 일정은 조율 후 수시 진행되오니 문의 바랍니다.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 2024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연구 지원
부분: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 10월 14일(토)~12월 14일(목)까지, 일반
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접수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02·460·7533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일림마당-소식' 참조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1월 12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3~39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 원데이클래스

일시: 11월 18일(토) 14:00
장소: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원
내용: 원석 목주팔지 만들기
대상: 청년/ 문의: 010·5639·8071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입학안내

입학설명회: 11월 25일(토) 14:00
겨울진학캠프: 2024년 1월 13일(토)~14일(주일)
대상: 현 초6학년/ 문의: 054·338·0530
▶전학 관련 사항은 교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일시: 11월 26일~28일/ 12월 1일~3일/ 12월 9일~11일/
12월 15일~17일/ 12월 29일~24년 1월 1일(연말연시)/
24년 1월 20일~22일(눈꽃산행)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일시: 11월 27일~29일(한라산 포함)/ 12월 8일~10일/
12월 16일~18일/ 24년 1월 6일~8일/ 24년 1월
12일~14일/ 24년 1월 19일~21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2024년 일정은 아래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12월 16일(토)~17일(주일)
2024년 1월 20일(토)~21일(주일)
3박 4일- 11월 16일(목)~19일(주일)
12월 7일(목)~10일(주일)
8박 9일- 11월 22일(수)~30일(목)
12월 26일(화)~2024년 1월 3일(수)
40일- 12월 19일(화)~2024년 1월 27일(토)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제2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일시: 12월 17일(주일) 10:30~17:00
장소: 부산가정성당
대상: 혼인을 희망하는 짝 없는 가톨릭 신자로
33~45세(1990~1978년생) 미혼자
(2022년 제1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참석자 배제)
접수: 11월 26일(주일)까지, 선착순 남녀 각 30명
문의: 부산교구 가정사목국 051·441·3501

해맞이 피정

일시: 12월 30일(토) 16:00~2024년 1월 1일(월) 13:00
장소: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25만 원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
수도원] 접수 후 입금
준비물: 수건, 칫솔 등 개인 세면도구, 텀블러 준비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장 사용입니다.

1년에 읽는 구약성경(zoom)

일시: 2024년 1월부터~12월까지 (주일) 16:00~18:00
지도: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회비: 12만 원×4회
문의: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대상: 신자, 일반인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故 김병운 라이문도 신부 25주기 추모미사

일시: 11월 13일(월)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교구 진주시구 정찬문화창단 제3회 연주회

일시: 11월 10일(금) 19:30
장소: 진주시 문산을 해봄아트홀(옛 진양고 자리)
연주곡: 슈베르트 미사곡 사장조 외 성가 및 일반곡
입장료: 무료
· 단장-장성조 바오로, · 지휘-이승엽 야고보,
· 반주-윤정은, 앙상블-K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 성령기도회 | 일시 | 장소 | 주제 | 강사 | 미사 주제 | 문의 |
|-------|-----------------|-------------------|-------------|------------------------|-------------|---------------|
| 교구 | 11월 6일(월) 19:00 | 중앙동성당 | 성체성사에 대한 이해 | 황 로즈마리 수녀(서울베네딕도수녀회) | 임성섭 유스티노 신부 | 010·5247·9900 |
| 청년 | 매주(수) 19:30 |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 성령기도회 |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 | 010·6667·7809 |

| 수도회 성소자 모임 | 일시 | 장소 | 문의 | 비고 |
|-----------------|---|-----------|-------------------------|---------------------------|
|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 상사-문의 바람 | | 010·6608·3217 | - |
|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 원하는날(미리 연락) | 부산 부곡동 본원 | 010·9353·1773(김 토마스 수녀) | 대상: 해외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
| 한국외방선교회 |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 | |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

| | | | |
|--|---|--|---|
| <p>가톨릭 트러블</p> <p>산티아고 순례길 42일 루르드/파티마 성지순례 일정 산티아고 도보순례 800Km 24년 4/7 549만원(+1,900유로) 070-4086-0207 catravel.co.kr</p> | <p>대성의전 경남장모컨설팅</p> <p>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p> <p>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p> | <p>천차만차</p> <p>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 <p>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여타 3박 4일 115만원</p> <p>마르코 투어 010-4239-1929</p> |
| <p>트래피스트 수녀원</p> <p>100% 유기농 잼</p> <p>딸기잼, 무화과잼, 꿀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p> <p>·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p> | <p>마카엘 여행사 성지순례</p> <p>■국내 성지순례 모집 제주도(추자도) 매주(월) 출발 12월 26일(화)~28일(목) 대전교구 4일</p> <p>■해외 성지순례 모집 12월 11일(월)~15일(금) 베트남 대당 5일</p> <p>마카엘여행사 010.8650.9690</p> | <p>마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p> <p>마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p> <p>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p> | |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29

김수경 바울리나(창녕본당)

찬미 예수님!

저희는 마산교구 내 공소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창녕 부부 순례단' 전기훈 프란치스코와 김수경 바울리나입니다.

6월 30일, 배둔공소에서 첫 순례길에 올라 약 3개월간의 여정 끝에 탑포공소에서 공소 순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탑포공소를 뒤로 한 채 벽차오르는 감정을 두 손에 모아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희 부부가 함께 느낀 소감을 같이 써봅니다.

햇살이 무척 뜨거웠던 여름 어느 날, 여정 중의 한 곳이었던 칠곡공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자매님 한 분이 공소 내 화단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계신 모습이 무척 인상 깊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공소 문밖으로 나오며 저희 부부도 자매님처럼 언젠가 칠곡공소처럼 작은 공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처음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장암공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장암공소 바로 옆집에 지내시며 공소를 가꾸고, 보살피고 계시는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부부를 아름다운 마당 안으로 초대해 주셨고 잠시나마 함께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매님께서 봉사하며 사시는 모습과 신앙심에 감동했으며 저희 또한 자매님처럼 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허락이 된다면 어떤 곳에서든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 봉사하며 여생을 보내자고 저희 부부는 또 다짐하였습니다.

공소 순례 시작 전에 우연히 방문했던 옥지공소는 당시에 무척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공소 순례로 다시 찾은 옥지공소는 출발하는 배에서 불어오는 바람부터 달랐습니다. 주님의 두팔 벌린 따뜻한 환대 속에 도착한 옥지공소는 다시 한 번 아름다웠고 감사했습니다.

타일 한 장 한 장에 담긴 정성에 미소가 지어졌고 높은 곳에서 계시는 예수님상과 십자가의 길, 그리고 피에타는 다시 봐도 저희 부부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공소 입구부터 화장실까지 묵묵히 정성껏 관리하고 계신 봉사자분께 멀리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한편 저희 부부에게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기억된 공소들도 있었습니다.

해 질 녘에 도착하여 잠시 불을 밝히려 하였으나 노후되어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법송공소는 안타까워 쉽게 떠나질 못했고, 성모님의 발만이 남은 채 문을 굳게 닫은 가배공소 앞에서 저희 부부는 기도도 읽은 채 울었습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 곰팡이, 문제가 생긴 순례 도장, 취약한 화장실 등 다양한 숙제들을 가진 공소들을 마주하며 저희 부부는 서로의 손을 더욱 꼬옥 잡았습니다.

색깔이 알록달록 모두 달랐던 23곳의 공소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공소를 지키고 가꾸는 봉사자분들과 신자분들이 계셨고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에게 따뜻한 말씀도 많이 건네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작은 강처럼 계셔주시기에 우리 마산교구와 천주교는 바다처럼 큰 신앙을 이루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순례지 23곳의 공소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공소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공소 순례를 계기로 전국 성지순례와 전국 곳곳에 숨은 공소들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순례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순례자가 될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변화를 거듭하는 교정마을

임마누엘공소 회장

하느님의 손길은 오늘도 교정마을 내 우리 공소에 따스한 봄처럼 다가오신다.

우리 교정마을은 각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입소하게 되었지만, 이곳이 단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담금질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곳이다.

나의 어리석었던 삶 속에서의 주님은 그저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차츰차츰 교리공부와 성경공부, 성가 연습과 레지오 활동, 그리고 미사 참례와 투병생활을 통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내 마음의 눈도 다시금 뜨게 되었다.

“잘못된 길에도 길이 있고, 길이 끝날 것 같은 길에도 길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잘못 들어섰던 그 길에서, 그리고 자칫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그 길에서, 나는 분명 길이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던가.

그분과 함께 만들어 갔던 일상들은 참회와 성찰을 통한 정화의 시간이었으며, 기쁨과 감사함을 통한 은총의 시간이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처음엔 몰랐지만 이 말씀의 수혜자가 바로 나였고, 또한 이곳 교정마을의 형제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하느님의 자비와 신자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 하지만 받기에만 익숙했던 우리들... 이제는 그 사랑을 보답으로 되돌려 드려야 함을 느낀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에 “예” 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잘 따르고 있는지 살피고 결심하며 실천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곳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과 신앙을 떠난 이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인도하는 일들도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많은 도움을 그저 받았기에 나보다 더 힘들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도와주고 나누는 일도 보답하는 길 이리라.

끝으로,

“교정마을 내 신앙공동체가 하느님 안에서 또 형제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교정사목 후원계좌 안내

○마산·창원·거제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3-35604, 농협 849-01-309873, 경남 593-07-0021495

○진주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5-22604, 농협 301-0041-1371-31, 우체국 613448-01-001528

●예금주: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정사목 사무실 055·249·7043

